

영광군민 1인당 50만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시범지 선정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접수 접수 후 3-4일 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전출 시 지원금 반납 '환수 규정' 적용도

영광군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영광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

이다.

지급 대상은 '전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제정된 2025년 4월3일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군민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 지역화폐인 '영광시랑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30일까지다.

특히 이번 기본소득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 지원금과는 달리 '환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령자가 사용 기한인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영광군 밖(관외)으로 전출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조치다.

신청은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시기를 나눠 진행된다. 우선 접수 첫 주인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그리고'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이후 1월5일부터 2월6일까지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동시에 진행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

소에서 가능하다. 이때 관할 주소지는 2025년 1월28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관내에서 이사한 경우라도 이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찾아야 한다.

신청 대상과 방법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합산돼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서' 등 체류 입증 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광군은 신청 접수 후 자격 조회를 거쳐 평일

기준 3-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업해 강도 높은 실거주 확인 조사를 별도로 방침이다.

환수 규정이나 예외 사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영광군과 전남도의 미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생에너지 이의 공유제인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살던 곳에서 노후를"…영암형 통합돌봄 본격화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내년 계획 확정
돌봄 신청자 재가 거주율 80% 목표

영암군이 내년부터 군민들이 요양 시설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어 2026년도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영암-울케어(All Care)'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낯선 시설로 거처를 옮기지 않고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상자 발굴부터 판정, 지원 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서비스 공백을 없애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 전문가 30명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삼행 영암지역자활센터장이 부위원장장을 맡았으며, 김문수 영암군의사회장과 장승희 동아보건대학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신청자 재가 거주율 80% 이상 달성'을 내년도 핵심 성과 목표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 병원 퇴원 환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사업을 넘어, 영암군민이 지역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흩어진 돌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목포지청,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알리기 '앞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남악 일대서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환경 정화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법무부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최근 남악중앙공원과 김대중광장 일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범죄 피해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피해 발생 시 국가와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신속한 치유·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의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며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록 안내했다.

또 남악중앙공원 및 인근 취약 지역을 돌며 쓰레기 수거하는 등 자연보호 활동도 병행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A씨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안심이 된다"며 "범죄 사건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1월 개소 이후 20년간 범죄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매년 200여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주거 환경 개선비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새해 첫날 완도서 '해맞이' 즐기세요"

郡, 내달 1일 명사십리서 병오년 행사

'해양치유 1번지' 완도군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를 특별한 치유 이벤트를 준비한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군민과 관광객의 안녕을 기원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새해 풍물 길놀이 ▲희망 콘서트 ▲신년 태고(복 치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대형 불에 소원 적기 ▲신년 화두 모래 조각 포토존 ▲새해 떡국 나눔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같은날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인 완도해양 치유센터도 새해맞이 손님맞이에 나선다. 센터는 하루 동안 친환경과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반값 힐링 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인기 코스인 '기본 2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군은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안전 관리와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진도 풍경 담은 '결혼해줄래' 내년 상반기 개봉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일환 제작
진도대파크림빵·전복·세방낙조 등장

진도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제작한 영화 '결혼해줄래'를 오는 2026년 상반기 개봉할 예정이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영화 '결혼해줄래'는 수려한 진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학력과 사회적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삶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와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속 주인공 '수연'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진도로 돌아와 타인의 삶과 아픔을 마주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해 나간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삶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내며 지친 일상에 위로와 감동을 전한다.

영화는 장완복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문경(수연 역)과 이상현(준호 역)이 주연으로 출연해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고, 배우 박재관(동식 역), 원주연(선희 역), 황지원(유라 역) 등이 출연해 우정과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관계를 그려낸다.

영화에는 진도의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지역 공동 상표 '진도온(JindoON)'이 등장하는데,



'진도온(JindoON)'은 언제나 밝게 불을 밝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활력 넘치고 건강한 진도의 농산물을 상징하는 인증 상표다.

또한 ▲진도대파크림빵 ▲진도전복 ▲진도 흉주 ▲진도개 ▲신비의 바닷길 ▲세방낙조 등 대표 관광 자원이 등장해 진도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영화 '결혼해줄래'를 통해 진도의 매력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지역에 따뜻한 관심과 활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자는 보건소 및 전문 의료 기관과 연계돼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관내 노인요양시설 16곳, 303명을 대상으로 겨울을 맞아 낭만적이고 풍성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비·곤충생태관의 '하얀 겨울 오두막' 콘셉트로 새롭게 꾸며 운영한다.

함평군은 '2025 함평 겨울빛축제' 기간 동안 엑스포공원 내 나비·곤충생태관을 '하얀 겨울 오두막' 콘셉트로 새롭게 꾸며 운영한다.

〈함평군 제공〉

함평 나비·곤충생태관 '하얀 겨울 오두막' 변신

나비 모양 오너먼트·이색 포토존 등

함평군 나비·곤충생태관이 겨울을 맞아 낭만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으로 새롭게 꾸며 운영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5 함평 겨울빛축제' 기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내 나비·곤충생태관을 '하얀 겨울 오두막' 콘셉트로 새롭게 꾸며 운영한다.

이번에 조성된 '하얀 겨울 오두막'은 눈 덮인 숲 속을 연상시키는 새하얀 트리와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어우러져 아늑한 겨울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감성 포토 존으로 연출된 것이 특징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강진군, 노인 요양시설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대한결핵협회 연계 무료 치료

강진군은 18일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이동형 검진 장비를 갖춘 차량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흉부 엑스선(X-ray) 촬영을 실시하고,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유소견자를 즉시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독 결과 유소견자나 기침 등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객담(가례) 채취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핵균이 발견될 경우, 환

자는 보건소 및 전문 의료 기관과 연계돼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관내 노인요양시설 16곳, 303명을 대상으로 겨울을 맞아 완료했으며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연계 조치를 마련했다.

이동형 검진 확산을 막기 위해 기침 예절 지키기,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 교육도 병행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결핵 발생 위험이 높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확대해 군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